

낙농산업 현안 논의...생산자 단체·유관 기관 한자리에

- 국립축산과학원, 5월 18~19일 낙농 분야 산학연 학술토론회 개최
- 로봇착유기·목장형 유가공·에이(A)2 우유 등 연구·산업 동향 공유
- 현장 중심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발전 방향 모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 18, 19일 이틀간 경기도 평택시 더인테라호텔에서 ‘낙농 분야 산학연 학술토론회’를 열고, 주요 낙농 산업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국립축산과학원과 낙농진흥회, 서울우유협동조합, 충남대학교 등 생산자 단체·유관 기관·학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에는 낙농 분야 주요 연구 성과와 산업 동향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주요 발표 내용은 △국산 로봇착유기 및 케이(K)-팜(FARM) 연구 현황 △국내 목장형 유가공업 활성화 방안 △국내 에이(A)2 우유 시장 현황 및 전략 △유성분 분석기 활용 엠아이알(MIR) 데이터 소개 △젖소 검정사업 활용 현황 △우유 엠아이알(MIR) 데이터 활용 메탄 발생량 예측 연구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낙농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자동화·디지털 전환을 통한 노동력 절감을 꼽았다.

또한, 목장형 유가공 활성화와 젖소 검정 및 개량 사업 활성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연구 성과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둘째 날에는 립축산과학원과 낙농진흥회,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서울우유협동조합, 한국중축개량협회, 충남대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낙농산업 현안을 주제로 종합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낙농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기술적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김상범 과장은 “낙농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나온 생산자 단체와 유관 기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 중심의 연구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학술토론회 일정표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책임자	과 장 김상범 (041-580-3380)
		담당자	연구사 이지환 (041-580-3392)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 세부 일정

시 간	분	내 용	진 행
5.18.(월)			
14:00		참석자 소개 및 단체 사진	축산원 이지환
14:20~14:40	20'	국산 로봇착유기 및 K-FARM 연구 현황	축산원 박성민
14:40~15:00	20'	국내 목장형 유가공업 활성화 방안	축산원 유자연
15:00~15:20	20'	국내 A2우유 시장 현황 및 전략	서울우유 김주환
15:20~15:40	20'	휴식	
15:40~16:00	20'	유성분 분석기 ^{FOSS} 활용 MIR 데이터 소개	한종협 박찬혁
16:00~16:20	20'	젖소 검정사업 및 유성분 분석기 ^{Bentley} 활용 현황	농협 이석현
16:20~16:40	20'	우유 MIR 데이터 활용 메탄 발생량 예측 연구 ^{공동연구}	JJ컴퍼니 이중재
16:40~17:00	20'	휴식	
17:00~18:00	60'	종합 질의 및 토론회	축산원 낙농과장
5.19.(화)			
10:00~12:00	120'	◦ 낙농산업 현안 문제 논의 * 토론회: (축산원) 낙농과장, 푸드테크과장, 개량과장, (낙농진흥회) 김동욱 차장, (젖소개량사업소) 신지섭 팀장, 이석현 과장, (서울우유) 김형중 소장, 김주환 차장, (한국중축개량협회) 구양모 부장, 최명현 팀장, 박찬혁 차장, (충남대) 임다정 교수, (JJ컴퍼니) 이중재 대표	축산원 낙농과장